

이웃 마거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선글라스가 제 잘 팔릴 것 같

제목 : 할머니 집에 갔던 날

아양~ 뽕 오늘아니 어제 오후 할머니 집에 왔다
게이 밤에 왔다 하루 밤이 지나고 일어났다
더웠다. 그런데 땀 많은 영교회를 못간다는 걸 알게 되
었다. 그래서 할머니께서 다니던 송정교회에
갔다. 예배가 끝나고 나는 목이 말라서
엄마에게 얼수를 사달라고 했다. 마트에
가려는데 송정교회 앞에서 콜라맛슬러시르 팔
고 있었다. 나는 거기에서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이
가져가라고 해서 하나를 가져갔다. 시원하고 맛
있었다. 교회에서 택시타고 가기전 마트에 들러
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사고 물만두도 샀다. 밥
을 먹고 나서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어린
이대공원에 있는 동물원에 갔다. 원숭이를 보
고 낙타, 얼룩말도 봤다. 사진도 찍었다. 그리
고 아이스크림도 맛나게 먹었다. 물이 많
은 물놀이장에서 조금 놀았다. 물은 차가웠
다. 말리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재밌
었다. 다음에도 도와서 더 재밌게 놀고 싶
다. 그리고 계속 어린이대공원이 이 상태로 있
어주면 좋겠다.